

[입무(立巫)가 선창하면 악무(樂巫)가 북, 장고를 치며 각구마다 복창함]  
 지장아 지장아/ 지장의 본이여<sup>1)</sup>/ 어디야 본인고.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남산과 여산이/ 주식이 엊어서/ 호이나<sup>2)</sup> 훌 때예  
 어느야 당에사<sup>3)</sup>/ 어느야 절[寺]에사  
 영급(靈給)이 조으며/ 수덕(授德)이 좋던고.  
 동개남(東觀音) 은중절(恩重殿)/ 서개남 금백당(金法堂)  
 낭개낭(南觀音) 노강절/ 북하산(北恒山) 농궁절(龍宮殿)/ 수덕이 좋더고/  
 남산과 여산이/ 송낙지<sup>4)</sup> 구만장(九萬張)/ 가사지(袈裟地) 구만장(九萬張)/  
 상백미(上白米) 일천석(一千石)/ 중백미 일천석/ 하백미 일천석/  
 백근(百斤)은 걸량(斤量)은 준준(準準)이 저울려<sup>5)</sup>/ 원수록<sup>6)</sup> 가시난<sup>7)</sup>/  
 새양죽 땅으로/ 지장의 아기씨/  
 소르릉 소르릉/ 소슬와 나더고<sup>8)</sup>/  
 혼설[一歲]이 나는 헤/ 어머님 무릅에/ 연조새 앗는고<sup>9)</sup>/  
 두설이 나는 헤/ 아바님 무릅에/ 연조새 앗더고/  
 쇠설[三歲]은 나는 헤/ 할마님 하르방[祖父]/  
 무립[膝]에 앗아서/ 노념을 흐더고<sup>10)</sup>/  
 닉설이<sup>11)</sup> 나는 헤/ 할마님 하르방/ 죽어야 가는고/  
 다섯설 나는 헤/ 설우신 아바지/ 죽어야 가더고/  
 으술설[六歲] 나는 헤/ 설우신 어머님/ 오독독<sup>12)</sup> 죽는고/  
 나년의<sup>13)</sup> 팔주(八字)여/ 나년의 스주(四柱)여/ 어딜로 가리야/  
 동네(洞內)야 금방상<sup>14)</sup>/ 웨삼춘덱(外三寸宅)으로/ 시양(收養)을 가더고/  
 가는 날부터사/ 개 먹단 접시예<sup>15)</sup>/ 술밥을 달렌다.<sup>16)</sup>/  
 지장의 아기씨/ 옥황(玉皇)의 부엉새(鵬鳥)

1) 본이여 : 본(本). 본초(本初).

2) 호이나 : 한숨을 내쉬는 소리.

3) 당에사 : 신당에야.

4) 송낙지 : 고깔을 만들 감.

5) 저울려 : (저울에) 달아서.

6) 원수록 : 수륙재(水陸齋). 기자(祈子)하는 불공의 뜻.

7) 가시난 : 갔으니.

8) 나더고 : 솟아나더군. 태어나더군의 뜻.

9) 연조새 앗는고 : 어리광부리는구나의 뜻.

10) 노념을 흐더고 : 놀이를 하더군.

11) 닉설 : 네 살.

12) 오독독 : 가는 나뭇가지 따위가 깍어지는 소리나 모양.

13) 나년 : 여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14) 금방상 : '방상'은 친족. '금-'은 조율음(調律音).

15) 먹단 접시예 : 먹단 접시에.

16) 술밥을 달렌다 : 술밥의 음변(音變). '술밥을 달렌다'함은 순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

훈 늘갤 끌리고<sup>17)</sup> / 훈 늘갤 더꺼서<sup>18)</sup> /  
하늘이 밥 주고 / 하늘이 옷 주고 /  
지장의 아기씨 / 착흐덴<sup>19)</sup> 소문이 / 동서(東西)로 나더고 /  
이러궁 저려궁<sup>20)</sup> / 열다섯 십오세 / 왕구녁 차시난<sup>21)</sup>  
서수왕 서펜의<sup>22)</sup> / 문수의 덱(宅)에서 / 문혼장(問婚狀) 오더고 /  
허락을 허시난 / 궁합(宮合)을 골리와<sup>23)</sup> / 궁합이 맞는고 /  
막핀지<sup>24)</sup> 오더고 / 이버지<sup>25)</sup> 오더고 /  
신랑이 오더고 / 신부가 가더라 /  
가는 날부터사 / 지장의 아기씨 / 생남즈(生男子) 보는고 /  
 지장의 아기씨 / 착흠도 착흐다 / 출림도 출렸저<sup>26)</sup> /  
유기(鎰器)야 전답(田畠)은 / 몰무쉬[牛馬] 아울라<sup>27)</sup> / 다 물려 주는고 /  
여레叟[十六]나는 헤 / 씨할망 하르방[嫗祖母祖父] / 오독독 죽는고 /  
여렐곱[十七]나는 헤 / 씨아방[嫗父] ??지도 / 죽어야 가는고 /  
예레듭[十八]나는 헤 / 설우신 씨어멍[嫗母] / 죽어나 가는고 /  
열아홉 나는 헤 / 설우신 낭군(郎君)님 / 오독독 죽는고 /  
생남즈 아울라<sup>28)</sup> / 다 죽어 가는고 /  
나년의 팔주(八字)여 / 나년의 수주(四柱)여 / 어딜로 가리야 /  
 지장의 아기씨 / 씨누이 방으로 / 훈 지방 넘으난<sup>29)</sup> /  
씨누이 나뜰년<sup>30)</sup> / 죽일 말 허더고 /  
씨누이 방으로 / 두 지방 넘으난 /  
씨누이 나뜰련 / 잡을말 허더고 /  
씨누이 나시난<sup>31)</sup> / 베록이<sup>32)</sup> 닷ಡ[五升]여 / 니가<sup>33)</sup> 닷ಡ여 /  
 지장의 아기씨 / 은장(銀欵)과 놋장[鎰欵]은 / 다 버려놓고서 /  
어디로 가리오 / 은장의 거리여<sup>34)</sup> / 놋장의 거리여 /  
 지장의 아기씨 / 서대야 구덕에<sup>35)</sup> /

17) 끌리고 : 깔고.

18) 더꺼서 : 덮어서.

19) 착흐덴 : 착하다는.

20) 저려궁 : 이리저리.

21) 왕구녁 차시난 : 혼인할 만큼 성숙하였으니.

22) 서펜의 : 서쪽의. '남편'이 '서수왕'에 조운(調韻)되어 음이 변한 것.

23) 골리와 : 가려.

24) 막핀지 : 혼인의 연길(涓吉) 날짜를 신부집에 보내는 예장(禮狀).

25) 이버지 : 혼인잔치 1, 2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술, 고기 따위, 보통 술 한 통, 돼지 한 마리, 닭, 계란 등 을 하인을 시켜 소에 실어 보냄.

26) 출림도 출렸저 : 차리기도 잘 차렸다(家具 등 遺產을).

27) 아울라 : 아울러(并). -마저. -까지.

28) 생남즈 아울라 : 생남자(生男子)까지. 생남자마저.

29) 훈 지방 넘으난 : 한 문지방을 넘으니. 한번을 가니의 뜻.

30) 나뜰년 : 내 딸년. 여자를 욕하는 말.

31) 나시난 : 낳았으니. 시누이가 매우 잘 낳았으니의 뜻으로 못돼먹었다는 뜻을 야유한 말.

32) 베록 : 벼룩.

33) 니 : 이(茲).

34) 은장의 거리여 : 은장(銀欵), 놋장(鎰欵)을 가득 별여놓아 파는 거릿길의 뜻.

훈두설 입단 옷// 걷어야 설러서<sup>36)</sup>//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디// 연서답<sup>37)</sup> 가는고//  
연서답 호노난<sup>38)</sup>// 동으로 오는 건// 대사(大師)가 오더고//  
서(西)으로 오는건// 소사(小師)가 오더고//  
대사야 소사야// 가는 질 멈춰서//  
나 팔자(八字) 글립서<sup>39)</sup>// 나 수주 글립서//  
대사야 소사야// 원천강 수주역(袁天綱四柱易)// 걷어나 가는고//  
지장의 아기씨// 전선은<sup>40)</sup> 좋수다<sup>41)</sup>// 후부는<sup>42)</sup> 늦수다.<sup>43)</sup>//  
원어멍 원아방<sup>44)</sup>// 씨어멍 씨아방//  
설우신 낭군님// 생남조(生男子) 아울라//  
전세남<sup>45)</sup> 흐옵서// 후새남<sup>46)</sup> 흐옵서//  
지장의 아기씨// 젖인 서답을<sup>47)</sup>//  
걷어나 설러서// 돌아나 오는고//  
지장의 아기씨// 서천강(西天江) 연뜰에<sup>48)</sup>// 저 뽕낭<sup>49)</sup> 싱근다.<sup>50)</sup>//  
싱근 날 나는고// 나는 날 입[葉]돋나//  
입돈 날<sup>51)</sup> 따다가// 누에 알(蠶卵) 깨는고<sup>52)</sup>//  
누에 밥 맥이고// 누에 좀 재와서//  
누에 씰 빠는고// 꼬리를<sup>53)</sup> 감는고//  
지장의 아기씨// 물멩지(明絀) 강멩지// 짜아도 가는고//  
주천강(酒泉江) 연못[蓮池]디// 연서답 가는고//  
석들은 열흘은// 벡일(百日)은 발렌다<sup>54)</sup>// 발레여 놓고서//  
초감제 드리(橋)여<sup>55)</sup>// 초공전 드리여<sup>56)</sup>//  
이공전 드리여// 시왕전(十王前) 드리여//

35) 구덕에 : 대바구니에.

36) 설러서 : 설것이하여서. 담아서의 뜻.

37) 연서답 : 서답=빨래. '연-'은 조율음.

38) 호노난 : 하노라니의 뜻. '호노렌 호난'의 축약.

39) 글립서 : 가리십시오. 사주팔자를 보십시오.

40) 전선 : 초년(初年.)

41) 좋수다 : 좋습니다.

42) 후부 : 만년(晚年).

43) 늦수다 : 나쁩니다.

44) 원어멍 원아방 : 원(元)어머니. 원아버지. 친정부모의 뜻.

45) 전세남 :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굿.

46) 후새남 :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비는 굿.

47) 서답을 : 빨래를.

48) 연뜰에 : 들(野)에. '연-'은 조율음.

49) 뽕낭 : 뽕나무.

50) 싱근다 : 심온다.

51) 입돈 날 : 일이 돋은 날.

52) 깨는고 : 까는군.

53) 꼬리 : 꾸리.

54) 발렌다 : 바랜다.

55) 초감제 드리(橋) : 초감제에 쓸 다리. '다리'란 굿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은 긴 무명인데 신이 이 무명길을 밟아 내린다 하여 '다리'라 함.

56) 초공전 드리 : 초궁신(初宮神)의 다리. 이하 신명(神名)

삼공전 드리여／수제(使者)님 드리여／  
군농님 다리여／영계님<sup>57)</sup> 드리여／  
체스(差使)님 드리여／혹시다 남은 건／  
울랑국 범천왕<sup>58)</sup>／대제김<sup>59)</sup> 끈이여／  
소제김<sup>60)</sup> 끈이여／혹시다 남은 건／  
본멘두<sup>61)</sup> 끈이여／신멘두<sup>62)</sup> 끈이여／  
혹시다 남은 건／열대자[十五尺] 칫어서<sup>63)</sup>／  
아강에베포여<sup>64)</sup>／일곱자 드려서／호롬에 줌치여<sup>65)</sup>／  
다 짜아 놓고서／지장의 아기씨／  
대공단고칼로<sup>66)</sup>／머리야 가까서／  
굴송낙<sup>67)</sup> 쓰는고／굴장삼(長衫) 입는고／  
손에야 목덕(木鐸)은 석자야 오치면／급부야 잘리<sup>68)</sup>／  
훗닐곱자[單七尺]에／호롬에 줌치여／  
열대자는 아강베포／둘러야 지고서／  
동(東)으로 들어서／서으로 나는고<sup>69)</sup>／  
서(西)으로 들어서／동으로 나는고／  
흡흡(슴슴)히 메와다／석섬쌀[三石米] 서말을 물증아<sup>70)</sup> 가는고／  
도고야 방애에<sup>71)</sup>／귀에남 절굿대<sup>72)</sup>／  
동네야 금방상<sup>73)</sup>／청비발<sup>74)</sup> 아기씨／  
다 심어 놓고서<sup>75)</sup>／이여도 방애여<sup>76)</sup>／이여도 방애여／  
오공콩 짓는고／이여도 방애여／  
?를[粉]은 봉무난<sup>77)</sup>／체할망<sup>78)</sup> 불르라／  
체바퀴 턱 치난／체 우횟<sup>79)</sup> ?를은／흙음도 훑수다.<sup>80)</sup>／

57) 영계님 : 영혼님(死靈).

58) 울랑국범천왕 : 모든 무악기를 일컫는 말.

59) 대제김 : 북, 장고, 징을 일컫는 말.

60) 소제김 : 꿩과리를 일컫는 말.

61) 본멘두 : 신칼, 천문, 상잔을 일컫는 말.

62) 신멘두 : 위와 같음.

63) 칫어서 : 찢어서.

64) 아강에베포여 : 아강베포. 중이 쌀을 얻으려 다닐 때 지는 멜빵인 듯.

65) 호롬에 줌치여 : 호롬증치. 중이 쌀을 얻으려 다닐 때 쌀을 넣어 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66) 대공단고칼 : 중의 머리를 깎는 칼이라 함.

67) 굴송낙 : 고깔.

68) 급부야 잘리 : 꼈베 잘리(麻布자루)

69) 나는고 : 나오는군.

70) 물증아 : 물말아.

71) 도고야 방애에 : 도구(搗臼) 방애에.

72) 귀에남 절굿대 : '귀에남'은 나무 이름이나 미상. '절굿대'는 절굿공이.

73) 금방상 : 8촌 이내의 친족. '금-'은 조율음.

74) 청비발 : 청(青)비바리. '청(青)'은 '젊은'의 뜻. '비바리'는 처녀의 낚춤말.

75) 심어 놓고서 : 잡아 놓고서.

76) 방애여 : 방아노래의 후렴구.

77) 봉무난 : 보슬보슬하게 되니.

78) 체 할망 : 채로 가루를 치는 할머니.

79) 우횟 : 위옛.

80) 훑수다 : 훑수다.

체 알옛<sup>81)</sup> 그를은／증질긴<sup>82)</sup> 증질아／  
물펜은<sup>83)</sup> 주는펜<sup>84)</sup>／소노야<sup>85)</sup> 송펜은／지어도 가는고／  
체 우횟 ?를은／강남(江南)서 들어온／쪼꼬만 멧시리<sup>86)</sup>／  
일본서 들어온／쪼꼬만 솟에다<sup>87)</sup>／  
물 즘아 놓고서／초징을<sup>88)</sup> 놓는고／  
이징을 놓는고／제삼(第三)징 놓아다／  
수인씨(燧人氏) 불러다／불화식(火食)<sup>89)</sup> 흐는고／  
초감젯 시리여<sup>90)</sup>／초공전(初宮殿) 시리여／  
시왕전(十王殿) 삼궁전／우올려<sup>91)</sup> 가는고／  
영게(靈魂)님 처서(差使)님／우올려 가는고／  
다 올려 놓고서／전새남 흐는고／후새남 흐는고／  
생남즈(生男子)??지도／제새남 후새남／허여도 가는고／  
지장의 아기씨／인간에 살아서／조은 일 흐더고／  
지장의 아기씨／죽어야 갈 때예／새몸에<sup>92)</sup> 나더고／  
머리로 나는 건／두통(頭痛)새 나더고／  
눈으로 흘그새<sup>93)</sup>／코으로 악심[惡息]새／  
입으로 헤말림<sup>94)</sup>／가슴에 이열새<sup>95)</sup>／  
오곰에 조작새<sup>96)</sup>／새몸에 가더고／  
요 새가 들어서／풍문(風雲)에 조화(造化)를／  
불러나 주더고／요 새를 드리자<sup>97)</sup>／  
주워라 훨쭉<sup>98)</sup>／다드려 가는고／  
주어라 훨쭉／훨쭉 훨짱 시겨가멍／  
요 지장은／누가 일뢰<sup>99)</sup> 지장인고／  
본주지관／나은 '선설'<sup>100)</sup>／일뢰지장／

80) 흙음도 흙수다 : 굵기도 굵습니다.

81) 알옛 : 밑옛.

82) 증질긴 : 자잘하기는.

83) 물펜 : 물에 살은 도래떡.

84) 주는펜 : 김으로 찐 도래떡.

85) 소노야 : '송펜'에 맞춘 조운구.

86) 멧시리 : 시루.

87) 솟에다 : 솔에다.

88) 초징 : 첫 징. '징'은 시루떡을 찔 때 소를 넣어 떨 수 있게 한 층계.

89) 불화식(火食) : 불을 피워 찌는군의 뜻.

90) 초감제 시리여 : 초감제에 쓸 시루떡이여.

91) 우올려 : 올려의 공대말.

92) 새몸에 : 조신(鳥身). 사(邪)가 조(鳥)의 뜻으로 변한 것.

93) 흘그새 : 흘깃흘깃하는 새.

94) 헤말림 : 부부살림 따위 일을 분산시킴.

95) 이열새 : 열사(熱邪). 가슴이 답답하게 하는 사(邪).

96) 조작새 : 무게 없이 자꾸 조작거리는 사(邪).

97) 드리자 : 쫓자.

98) 훨쭉 : 새 따위를 쫓는 소리.

99) 일뢰 : 이루어 놓은. 일으켜 놓은. 예사와 다른 분잡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장을 일루왔다(일으켰다)'고 함.

100) '선설' : 몇 살.

지장 만보살／신풀었수다./  
갑을동방(甲乙東方)／오는 엑년(厄緣)／  
경진서방(庚申西方)／벵오남방(丙午南方)／  
해즈북방(亥子北方)／오는 엑년／다 막읍서／  
날로 날역[日厄]／들로 둘역[月厄]／  
월역(月厄) 시력(時厄)／다 막아줍서／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입무(立巫)가 선창하면 악무(樂巫)가 북, 장고를 치며 각구마다 복창함]

지장아 지장아／지장의 본이여／어디야 본인고／  
남산국 본이여／여산국 본이여／  
남산과 여산이／자식이 없어서／호이나 한숨쉴 때／  
어느 당이／어느 절이／  
영급이 좋으며／수덕이 좋던가／  
동관음 은중전／서관음 금법당／  
남관음 노강절／북항산 용궁전／수덕이 좋더군／  
남산과 여산이／송낙지 구만장／가사지 구만장／  
상백미 일천석／중백미 일천석／하백미 일천석／  
백근이나 되게 차려서／기자불공 갔더니／  
새양죽 땅으로／지장의 아기씨／  
사르릉 사르릉／태어나더군／  
한살 나는 해／어머님 무릎에서／어리광 부리는구나／  
두살 나는 해／아버님 무릎에서／어리광 부리는구나／  
세살 되던 해／할머님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놀이를 하더군／  
네살 나는 해／할머님 할아버지／돌아가시고／  
다섯살 나는 해／불쌍한 아버지／돌아가시니／  
여섯살 나는 해／불쌍한 어머님／오독독 죽는구나／  
내 몸의 팔자여／내 몸의 사주여／어디로 갈까／  
동네에 친척／외삼촌댁으로／수양딸로 갔더니／  
가는 날부터／개 먹던 접시에／밥을 조금 주는구나／  
지장의 아기씨／옥황의 부엉새  
한 날개를 깔고／한 날개를 덮어서／

하늘이 밥 주고／하늘이 옷 주고／  
지장의 아기씨／착하단 소문이／동서로 나더군／  
이리 저리 하여／열다섯 15세／혼인하게 되니／  
서수왕 남편의／문수의 댁에서／문혼장 보내와／  
허락을 하시니／궁합을 가리니／궁합이 맞는구나／  
예장이 오더니／아버지 오더군／  
신랑이 오고／신부가 가더라／  
가는 날부터／지장의 아기씨／생남자 보는구나／  
지장의 아기씨／착하기도 착하다／차리기도 잘 차렸다／  
유기야 전답은／우마마저／다 물려 주는구나／  
열여섯 나는 해／시할머니 시할아버지／오독독 죽는구나／  
열일곱 나는 해／시아버지까지도／죽어 버리는구나／  
열여덟 나는 해／불쌍한 시어머니／죽어 버리는구나／  
열아홉 나는 해／불쌍한 낭군님／오독독 죽으니／  
아들까지／다 죽어 가는구나／  
이 몸의 팔자여／이 몸의 사주여／어디로 갈까나／  
지장의 아기씨／시누이 방으로／한 지방 넘으니／  
시누이 못된년／죽일 말 하더군／  
시누이 방으로／두 지방 넘으니／  
시누이 못된년／잡을 말 하더군／  
시누이를 낳기도 잘 낳아서／벼룩이 닻되어／이가 닻되어／  
지장의 아기씨／온장과 놋장은／다 버려 놓고서／  
어디로 가리요／온장의 거리여／놋장의 거리여／  
지장의 아기씨／대바구니에／  
한두 살 때 입던 옷／거두어 들여서／  
주천강 연못에／빨래하러 가더군／  
빨래를 하노라니／동쪽으로 오는 것은／대사가 오고／  
서쪽으로 오는 것은／소사가 오고／  
대사야 소사야／가는 길 멈춰서／  
나 팔자 봄 주십시오／나 사주 봄 주십시오／  
대사야 소사야／원천강 사주역／걷어 가는군／  
지장의 아기씨／초년은 좋습니다／만년은 나쁩니다／  
원어머니 원아버지／시어머니 시아버지／  
불쌍한 낭군님／아들마저도／  
전세남굿을 하십시오／후새남굿을 하십시오／  
지장의 아기씨／젖은 빨래를／

거두어 들여서/돌아오는군/  
지장의 아기씨/서천강 들에/뽕나무 심는다/  
심은 날 나더니/나는 날 잎 돋아나는구나/  
잎 돋은 날 따다가/누에 알 까게 하는군/  
누에 밥 먹이고/누에 잠을 재워서/  
누에 실 빠는구나/꾸리를 감는구나/  
지장의 아기씨/물명주 강명주/짜 가는구나/  
주천강 연못에/빨래하러 가는구나/  
석달 열흘은/백일은 바랜다/바래어 놓고서/  
초감제 다리여/초공전 다리여/이공전 다리여/시왕전 다리여/  
삼공전 다리여/사자님 다리여/  
군농님 다리여/영혼님 다리여/  
차사님 다리여/하다 남은 것은/  
악기의 끈이여/북 장고 끈이여/  
팽과리 끈이여/하다 남은 것은/  
본멘두 끈이여/신멘두 끈이여/  
하다 남은 것은/열댓자 찢어서/  
아강에베포여/일곱자 드려서/호롬에 줌치여/  
다 짜 놓고서/지장의 아기씨/  
대공단고칼로/머리를 깎아서/  
고깔을 쓰는군/굴장삼 입는군/  
손에는 목탁이/석자 오치/급부야 자루/  
홑일곱자에/호롬에 줌치여/  
열대자는 아강베포/둘러 지고서/  
동으로 들어서/서으로 나가는구나/  
서으로 들어서/동으로 나가는구나/  
홉홉히 모아다/석섬쌀 서말을/물 말아 가는구나/  
도구 방아에/귀에남 절굿대/  
동네야 친족들/처녀 아기씨/  
다 잡아 놓고서/이여도 방아여/이여도 방아여/  
오공콩 짓는고/이여도 방아여/  
가루는 부서지니/체 할머니 불러라/  
체바귀 턱 치니/체 위 가루는/굵기도 굵습니다/  
체 밑엣 가루는/자잘하기는 자잘하여/  
물펜은 자는펜/소노야 송편은/지어 가는구나/  
체 위 가루는/강남에서 들어온/자그마한 시루/

일본에서 들어온／자그마한 솔에다／  
물 말아 놓고서／초징을 놓는군／  
이징을 놓고／제삼징 놓아서／  
수인씨 불러다／불을 때는군／  
초감제 시루떡이여／초공전 시루떡이여／  
시왕전 삼궁전／올려 가는구나／  
영혼님 차사님／올려 가는구나／  
다 올려 놓고서／전새남굿을 하는구나／후새남굿을 하는구나／  
아들 몫까지도／전새남굿 후새남굿을／하여 가는구나／  
지장의 아기씨／인간에 살아서／좋은 일 하더군／  
지장의 아기씨／죽어서 갈 때／새몸에 환생하더군／  
머리로 나는 건／두통새 나고／  
눈으로 흘그새／코로 악심새／  
입으로 해말림／가슴에 이열새／  
오곰에 조작새／새몸에 환생해 가더군／  
요 새가 들어서／풍문에 조화를／  
불러 주더군／이 새를 쫓자／  
주워라 훨쭉／다 쫓아 가는군／  
주어라 훨쭉／훨쭉 훨짱 시켜가면서／  
이 지장은／누가 일으켜 놓은 지장인고／  
본주지관／나이는 ‘몇 살’／일으켜 놓은 지장／  
지장 만보살／신풀었습니다／  
갑을동방／오는 액연／  
경진서방／병오남방／  
해자북방／오는 액연／다 막으십시오／  
날로 날액／달로 달액／  
월액 시액／다 막아주십시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184-195.